



“감독님이 보고있다” 흥명보 감독이 15일(현지시간) 오후 전지훈련지인 브라질 파라나주 포즈 도 이구아수시의 아베시(ABC)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뮌헨이 불러도 안갈래요”

손흥민 레버쿠젠에 애정 표현 “지금 충분히 행복해”

“레버쿠젠에서 너무 행복해요.”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가 레버쿠젠에서 맹활약하는 ‘손세이션’ 손흥민(레버쿠젠)이 소속팀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16일 독일 일간지 베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바이에른 뮌헨에는 가고 싶지 않다”며 “레버쿠젠에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팀을 떠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뮌헨은 분데스리가의 전통 강호로

이번 시즌 정규리그 16경기에서 무패 행진(14승2무)을 이어가며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분데스리가, 독일컵, 유럽 슈퍼컵,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까지 다섯 개의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등 세계 최강 클럽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때문에 유럽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은 한 번쯤 뛰고 싶어하는 ‘꿈의

클럽’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손흥민은 ‘꿈’보다는 ‘현실’을 시작했다.

손흥민은 “나는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원한다. 레버쿠젠에서 오래 뛰고 싶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1000만 유로의 이적료를 발생하며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14경기 동안 7골(2도움)을 터트리며 핵심 공격자원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만 2-0 완파…이광종호 8강 ‘콜인’

아시아 U-22 챔피언십

19일 시리아와 준결승

2014 아시아축구연맹(AFC) 22세 이하(U-22) 챔피언십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의 이광종 감독이 8강 진출의 기쁨을 선수들의 공으로 돌렸다.

대표팀은 16일 오만 부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오만과의 대회 A조 3차전에서 후반 17분 김경중(SM)의 결승골과 후반 35분 윤일록의 추가골을 앞세워 2-0으로 완파했다. 2승1무(승점 7·골득실 +5)를 기록한 한국은 요르단(승점 7·골득실 +6)과 승점이 같았

지만 골득실에 밀려 조 2위로 8강에 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일 B조 1위로 8강에 진출한 시리아와 준결승 진출을 놓고 한판 대결에 나선다.

오만전에서 승리를 막본 이광종 감독은 “우선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 제자들의 선전을 칭찬했다.

그는 “전반전에 선수들의 몸 상태가 조금 무거웠지만 후반전들어 커디션이 회복돼 승리하게 됐다”며 “8강에 오른 만큼 더 좋은 성적으로 내도록 준비를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1골을 앞선 상황에서 더욱 공격적

인 플레이를 주문한 이유에 대해선

“오만이 ‘킥 앤드 러시’ 스타일의 공격을 주로 하다보니 후반에 지쳐보였단다”며 “상대 수비에 간격도 많이 생겨서 우리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만전에서 후반 17분 결승 헤딩골을 터트린 김경중(SM)은 “기회가 한 번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었던 게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요인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종호(전남)가 종아리 부상으로 갑자기 전력에서 빠지게 돼 대체 선수로 합류한 김경중은 오만을 상대로 후반 17분 기막힌 다이빙 헤딩 슈팅으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하대성 쓰러졌다…홍명보호 부상 경계령

선수들 지나친 경쟁심리에 ‘오버페이스’ 우려

브라질 전지훈련 첫 훈련에서부터 ‘부상 경계령’이 내려졌다.

흥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미드필더 하대성(베이징 귀안)은 15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포즈 두 이구아수시의 아베시(ABC) 경기장에서 치러진 훈련에서 오른쪽 종아리에 부상을 당했다.

검사 결과 다행히 가벼운 부상이었지만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홍 감독은 이를 통해 코칭스태프를 긴장하도록 만

들기에는 충분했다.

하대성은 다른 19명의 필드 플레이어들과 함께 이날 첫 훈련 프로그램인 쿠퍼테스트를 시작했다. 쿠퍼테스트는 20m 거리를 왕복해 뛰며 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출발 리인에 선 하대성은 차운 훈련이 시작하자마자 절뚝거리며 그라운드 밖으로 나와 주저앉았다.

그는 오른쪽 종아리를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했다. 코칭스태프들은 더

이상 훈련을 소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하대성은 얼음 주머니를 부상 부위에 감은 채 곧바로 속소인 이구아수호텔로 돌아갔다.

검사 결과는 가벼운 근육 부상. 최근 FC서울에서 베이징으로 이적하는 데 충분히 개인 훈련을 하지 못한 탓에 이날 갑작스러운 훈련에 근육이 경직된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은 브라질에 도착한 뒤부터 출발 ‘전훈’ 기간에 부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선수들 입장에서는 몸을 더 져서라도 본선행 티켓을 손에 넣겠다

는 경쟁심이 앞설 수밖에 없다. 대표팀은 3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전날 오후 7시께가 돼서야 숙소에 도착했다. 일부 선수는 저녁 식사를 한 뒤 호텔 뒤편에 있는 공터에 가까운 작은 운동장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개인 훈련을 했다. 이날 오전에도 몇몇 선수들은 이곳에 자발적으로 모여 공을 훈련했다.

앞으로 3주간 계속될 전지훈련에서 선수들의 투쟁심을 끌어올리는 한편 이들이 ‘오버페이스’는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대표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월드컵 주심 25명 확정…심판 156명 중 한국인은 없어

6월 개막하는 브라질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주심을 맡아볼 심판 25명이 확정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5일 브라질 월드컵에서 활약할 심판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륙별로는 유럽에서 9명, 남미 5명, 아시아 4명, 아프리카와 북중미에서 각각 3명씩 선발됐고 오세아니아에서도 1명이 심판을 보게 됐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심판으

로는 라프산 이르마토프(우즈베키스탄), 니시무라 유이치(일본), 나와코 슈크릴라(비라에인), 벤 월리엄스(호주) 등 네 명이다. 한국 심판은 156명의 주·부심 후보자 명단에도 들지 못한

사실이 지난해 12월 알려진 바 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결승전 주심을 맡은 하워드 웨브(잉글랜드) 심판은 이번 대회에서도 훌륭을 불게 됐다. 웨브 심판은 당시 스피드과 네털란드의 결승전에서 엘로카드를 14번이나 꺼내 역대 최다 기록을 만들었다.

그러나 선수들 입장에서는 몸을 더 져서라도 본선행 티켓을 손에 넣겠다

1월 18일(토)

▲광주금당시민의회 1월 18일(토) 일실 백련관 도시를 산 1녀4선, 친율동 한마음마트 앞 0620, 엄주체육관 주차장 0635, 한국원원 앞 0640, 문화예술회관후문 0650, 엄마데일리주차장 0700

*디经济技术 010 4294 2678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KTX와 ITX 그리고 페스티벌 010 3620 2002

▲광주진주봉도산악회 1월 18일(일) 통영 사랑도 0620, 지리산 0620, 진주 0630, 창녕 0640, 경주 0650, 울진 0660, 울릉 0670

▲광주금당시민의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 문화회관 0670

▲광주청도산악회 1월 18일(일) 남원 바레방 눈꽃산행, 무각사 0635, 문화예술회관 0640, 문화회관 0650, 문화회관 0655, 문화회관 0660